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

대구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 Journal

도시



Contents

- 03 결의문
- 0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06 상임위원회 활동
- 12 주요안건처리 요약
- 14 시정질문 · 답변
- 17 5분 자유발언
- 20 제7대 대구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 21 시정소식
- 22 문화마당(大邱十味)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명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했다. (6. 25)



'대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였다. (6. 10)

※ 표지사진 _ 강정고령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 의 문

우리는 대구시민의 대표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열린 의정 실천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부단한 노력과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대구시민을 위한 변화, 대구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구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부패방지 및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5. 5. 14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동희)는 제233회 임시회(5. 1 ~ 5. 14) 및 제234회 정례회(6. 15 ~ 6. 30) 기간 동안 회부된 총 56건(조례 33, 기타 23)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대구시 메르스종합대책본부 방문

대구시의회 의장단은 시 메르스종합대책본부 및 안전총괄과를 방문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여념이 없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6. 22)

▶ 광주 5.18민주운동 기념식 등 참석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운동 기념식 및 달빛동맹 민간협력위원회 창립총회 등에 참석하여 양 지역 간 민간교류의 장을 펼쳤다. (5. 18)

▲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 간담회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의원)는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과 관련하여 대구시 신공항추진단과 간담회를 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대구시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6. 29)

▼ 대구시의회·경남도의회 지방분권 협약 체결

대구시의회 지방분권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철 의원)는 온전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경남도의회와 분권운동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6. 17)





▲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5. 7)



문사철 포럼 강연회 개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문사철 포럼' (회장 오철환 의원은 '새롭게 읽는 대구 역사' 라는 주제로 대구의 매력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대구 바르게 알리기에 앞장서기 위해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5. 14)



2014 회계연도 대구시세입세출 결산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 의원은 2014회계연도 대구시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세입징수관리 특단의 대책 마련과 사업취소·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하였다. (6. 24)



대구경제클럽 세미나 개최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대구경제클럽' (회장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의 현실에 맞는 일자리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대구, 일자리! 일자리!'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5. 1)



▲ 대구 바로알기 운동 4차 현장투어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제233회 임시회 폐회 후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어 '한국관광의 별' 과 '한국인이 가봐야 할 100곳'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인기 관광 상품으로 떠오른 중구 근대골목 현장투어를 실시하였다. (5. 14)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유교문화권 현장 방문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광교 의원은 안동 하회마을 등 유교문화권 현장투어를 통해 안동의 관광자원과 대구의 인프라를 접목하는 상생관광 방안을 모색하였다. (6. 2)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 추천 관련 논의

위원 : 최길영(위원장), 조성제(간사), 최광교, 임인환, 최인철, 최재훈, 조홍철 의원



운영위원회 간담회 개최 (5. 26)

주요안건 처리현황

-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례회

2015. 5. 29(금)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주요안건처리를 위해 토론 (5. 29)

기타 의정활동

- 2015. 5. 11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간담회 개최 - 제2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논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대구비로알기 운동 TV캠페인 공익방송 일정 안내 등
- 2015. 6. 23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 2015. 6. 23 : 간담회 개최
- 제2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논의

최길영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취임

- 주요활동 : 전국시·도의회회 공동 이해 현안사항 협의, 지방자치발전 제도 발굴·개선 등

» 기획행정위원회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제도 운영현황 논의

위 원 : 배지숙(위원장), 최광 교(간사), 김익식, 오철환, 조성제, 김혜정 의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정책적 제언 마련을 위한 제주도의회 방문 (4. 21)

주요안건 처리현황

-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원안가결

기타 의정활동

- 2015. 5. 6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국, 자치행정국,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15. 5. 13 : 제12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 2015. 6. 18 ~ 6. 22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국,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교육청소년정책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 12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5. 13)



>> 문화복지위원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격려

위원 : 이재화(위원장), 임인환(간사), 도재준, 김규학, 김재관, 차순자 의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대구시 선수단 방문 (5. 19)

주요안건 처리현황

-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기타 의정활동

- 2015. 5. 6 : 2015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015. 6. 18 ~ 6. 19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안 심사
-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대구광역시의회 메르스관리대책 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심사 (6. 19)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DTC) 개관 준비 상황 점검

위 원 : 박일환(위원장), 최인철(간사), 장상수, 최길영, 정순천, 김원구 의원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 방문 (5. 22)

주요안건 처리현황

-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유치기업 (주메가젠임플란트 지원동의안 원안가결

기타 의정활동

- 2015. 5. 4 : 2015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첨단의료산업국, 창조경제본부, 녹색환경국 소관
- 2015. 5. 8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방문
- 2015. 6. 18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창조경제본부, 경제부시장 직속부서,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소관



창조경제본부 등 소관 업무분야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6. 18)



>> 건설교통위원회

도시철도 3호선 운행 지연 재발 방지 철저한 대책 촉구

위원 : 조재구(위원장), 최재훈(간사), 류규하, 강신혁, 김창은, 이귀화 의원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문제와 운영상황 등 점검을 위한 서문시장역 방문 (5. 27)

주요안건 처리현황

-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타 의정활동

- 2015. 5. 4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 2015. 6. 19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최근 부품고장 등에 따른 안전점검 차원의 긴급 현안사항 청취 (6. 19)

학교 공사 추진 및 개교 준비 상황 등 점검

위 원 : 윤석준(위원장), 조홍철(간사), 이경애, 박상태, 배창규 의원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대구사수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방문 (6. 18)

주요안건 처리현황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청 계약제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15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기타 의정활동

- 2015. 4. 28 : 학원조례 개정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 2015. 5. 31 :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관
- 2015. 6. 18 : 대구사수초등학교 방문
- 2015. 6. 22 : 2014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격려 및 경기 관람 (5. 31)

제233회 임시회

총 29건 (조례 18건, 기타 11건)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재단대표에게 이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재단운영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덕망 있고 유능한 인사가 대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재단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 임인환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10년 이상 재직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 재충전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윤석준, 박상태, 배창규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각종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도재준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 제정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지속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주의 공동협력 전략 모색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중이던 기존의 유사조례인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조재구, 김창은, 김익식, 배창규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

착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배창규, 박상태, 이경애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한복 착용 문화진흥 조례 제정

우리의 전통 의복인 한복이 근대화 과정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생활의복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명절, 혼례 등의 특정한 날에만 입는 의복으로 인식되고 우리 의복문화가 서양식으로 변경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유의 한복을 보존하기 위하여 서민들에게 한복 착용을 권장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이경애 의원 발의

제234회 정례회

총 27건 (조례 15건, 기타 12건)

대구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님비(NIMBY)현상과 핼피(PIMFY) 현상 등 자기중심적이고 공공성이 결핍된 집단이기주의의 표출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갈등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최광교, 조성제, 강신혁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시민편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조례에 사용된 일상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부적절한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조재규, 배창규, 오철환, 차순자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불의의 사고로 위협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이재화, 정순천, 차순자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

문화기부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대구광역시 쉼터 아너스 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의 아름다운 기부정신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통해 자발적인 문화기부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함.



▶ 김재관, 김원구, 차순자, 배창규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문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 환경과 범죄발생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범죄 심리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의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강신혁, 배창규, 이경애, 이재화, 최재훈 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차원에서 생존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과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1인당 100만원)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임인환, 도재준, 이재화 의원 발의

제233회 임시회



이 귀 화 의원

달서구1 / 건설교통위원회

Q 두류정수장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장기공원 내 성서공동묘지 이전 계획 및 장기공원의 단계별 조성 계획은?

A 두류정수장 후적지는 도심에 위치한다 접근성이 우수하여 그동안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나, 아직 뚜렷한 개발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개발방안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전에 단계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용역을 추진하여 빠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가 임박한 시점에서 공동묘지이장을 위해 공원조성 개발계획을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공원시설을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묘지이장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공원 조성계획으로는 1단계(15~17년)로 웃는 얼굴아트센터 북편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18~20년)로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 공원필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2단계 사업 중 산책로 조성등과 같이 시급한 사업은 1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 창 규 의원

비례대표 / 교육위원회

Q 초등학교 신규임용예정자의 임용 적체에 대한 해소 방안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도심지 중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A 신규임용교사들의 현장적응력 제고와 교사부족에 따른 퇴직교원의 계약직 교원 활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인사제도 개선사업으로 신규임용 소요 정원의 1.5~2배수를 선발하는 예비교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용대기자가 382명으로 당초계획보다 많이 남게 된 것은 2014년을 정점으로 경기불황 등의 원인으로 휴직자 수 대비 복직자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어 임용대기자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교사수급 예측으로 임용대기자들이 적정기간 예비교사자로 활동 후 바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도심지 학교는 먼저 신흥개발지구내 이전을 우선 검토하고, 이전이 어려운 학교 중 인접지역 내 소규모 학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통·폐합을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및 이전 재배치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공동체의 이해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통·폐합 학교간의 교육과정 조정 등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재준 의원
동구4 / 문화복지위원회

Q 안심연료단지의 폐쇄 및 이전 계획은?
공영개발을 통한 연료단지 이전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A 그동안 연탄공장 이전을 위해 2010년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등을 통해 이전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대구지역에는 적정 부지가 없으며 연탄공장 업체들은 이전지가 있더라도 2020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폐지를 앞두고 신규 투자가 필요한 연탄공장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자발적인 폐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탄공장 이전이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서 폐쇄 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우리시는 특단의 대책추진과 함께 비산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사업지원, 연료단지 폐쇄 후 안정적인 연탄공급 등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주민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심연료단지 개발사업은 대구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개발방향은 인근 혁신도시와 연계한 균형개발과 주거,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부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유관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구역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규학 의원
북구4 / 문화복지위원회

Q 메르스에 대한 대구시의 발생 대응체계와 대책은?
메르스 확진환자를 감염내과 전문의도 없는 대구의료원으로 보낸 이유는?

A 메르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우리시는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각 구·군의 보건소장, 보건담당이사, 그리고 감염내과전문의들을 자문단으로 하는 메르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메르스를 차단하기 위해 동대구역 등 11개소에 열감지장치를 설치하였고, 보건소와 대구의료원에 격리 외래진료소를 설치해서 그동안 대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에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메르스 환자의 동선과 경로를 파악하여 밀접접촉자를 격리하고 조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다른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구의료원으로 결정하였고, 환자에 대한 치료는 경북대, 영남대 등 종합병원 감염전문의들이 협진하여 치료하는 것으로 이미 전체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약속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대구의료원에 감염내과를 설치하여 또 다른 전염사태가 올 경우 대구시의 책임병원으로서 다른 병원들이 져야 될 부담을 먼저 지도록 하겠습니다.



조 성 제 의원

달성군1 / 기획행정위원회

Q 폐기물 에너지화(SRF)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사유, 시설가동에 따른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대책, 불합리하게 맺은 사업 협약서 수정, 행정절차 적정성, 폐기물 반 입수수료 문제 해결 방안은?

A SRF사업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SRF사업을 추진하면서 1,230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2008년 11월 민자 사업 제안서를 KDI에 검토 의뢰한 결과 재정사업보다 경제적 타당성과 적격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시의회 채택동의, 대구시 및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의결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대책은 서재지역에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실시간 알려주는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유해물질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필요시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하겠으며, 협약 내용대로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관리·운영권을 말소 처분하는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우리 시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사업협약서 수정여부, 행정절차 미이행 및 매립장 수수료는 한번 더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 길 영 의원

북구2 / 경제환경위원회

Q 대구시민의 날(10월 8일)을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날로 새롭게 제정,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A 현재 10월 8일은 대구직할시 승격 100일이 되는 날로 시민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시민의 날이라는 원칙과 기준으로 볼 때 의미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10월 8일이 시민의 날이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을 새로운 의미를 담은 정체성이 있는 날로 변경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시민의 날로 제시해 주신 2월 21일 국채보상운동, 2월 28일 민주화운동 그리고 7월 16일 대한민국 임시수도 지정일도 시민들 속에 정체성으로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21국채보상운동, 2.28민주화운동 등을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을 살린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구의 정체성이 담긴 시민의 날을 새롭게 제정하는 부분들에 공론화와 공감대가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변경 및 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론화하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233회 임시회



장 상수 의원
동구2, 경제환경위원회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완벽한 교통대책 마련

설계 당시보다 늘어난 인근 거주인구와 상권변화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동대구복합환승센터의 교통대책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지난해 나온 교통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승센터가 건립되면 지금보다 1천대 이상의 차량이 몰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교통대책은 남북방향에 집중 논의되어 동서방향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교통대란 방지를 위해서는 환승센터 맞은편 도로에서 동부정류장 방향의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동대구 역세권 지구지정을 통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개발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조 홍철 의원
달서구2, 교육위원회

교권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노력'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심각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위와 교권을 돌려주어 진정한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예절 및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수업집중도 향상 및 교권이 자연스럽게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권 보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교권침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교권회복과 교권존중을 추구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배 지숙 의원
달서구6,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민광장 조성 제안

우리 대구도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치의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광장문화 조성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시민 누구나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소통의 명소로 지난 2010년 3월 폐원된 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 대구적십자병원 일대에 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대구적십자병원 후적지를 대구시에서 매입하여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면 주변지역 활성화, 도시의 새로운 광장문화, 골목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제233회 임시회



김원구 의원
달서구5, 경제환경위원회

상리음식물처리장·서부하수슬러지고화시설의 구체적인 개선 대책 촉구

상리음식물처리장의 성능 보증량 미달, 바이오가스 및 폐수처리 문제, 서부하수슬러지고화시설의 감량화시설 성능 미비, 사업 발주처 문제, 시설공사 중 처리용량 변경 문제, 준공승인 경위 등 환경시설의 총체적인 난국에 대해 대구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각성시키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추진과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류규하 의원
중구2, 건설교통위원회

영구임대주택 거주지 변경 관련 규정 개정 필요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생계활동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구임대주택사업의 취지인 취약계층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과는 동떨어진 현실이다. 대구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간 거주지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정부투자기관인 LH공사와도 상호공조와 협력을 통해 관리주체가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간에도 주거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박상태 의원
달서구4, 교육위원회

세계물포럼 문제점 진단 및 발전 방향 제시

지난 4월 개최된 세계물포럼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사전준비 점검 소홀로 대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으며 미숙한 대회 운영 등 행사 운영 전반에 있어서 미비한 점도 많았다. 이번 대회 동안 도출된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앞으로 개최할 국제행사에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발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대회를 통해 구축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구를 세계 물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최광교 의원
북구1, 기획행정위원회

88올림픽고속도로, '달빛고속도로'로 개칭 건의

대구와 광주 지역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달빛동맹은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지난 세월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달빛동맹의 정신과 상징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현재의 88올림픽고속도로의 명칭을 '달빛고속도로'로 개칭하여 대구와 광주를 잇는 가교역할이자 정신적인 연결고리는 물론 영·호남 화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순천 의원
수성구1, 경제환경위원회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재검토 필요

현재 수성의료지구 개발방향은 의료지구인지 소프트웨어융합단지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행계획대로 의료와 SW산업 병행 개발시 타 지역 개발사업과 중복되어 수성의료지구만의 특색을 잃어버리고 산업간 시너지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용지 분양관련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양방식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수성의료구를 의료관광뷰티산업의 메카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경애 의원
북구3, 교육위원회

대구 교육국제화특구사업 국비 확보방안 마련해야

대구 북구, 달서구지역은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방향 또한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위기에 빠진 대구 교육국제화특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구사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의 연계 및 공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교육청과 시청이 분야별로 역할분담을 하여 특구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특구사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제234회 정례회



임인환 의원
중구1, 문화복지위원회

경상감영 복원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문화재 정책 요구

역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경상감영 복원사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구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주어진 임무이다. 그러나 경상감영 복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간인 구 병무청 부지가 학교법인에 매각되었지만 대구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수용이 가능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다. 이제라도 학교법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복원사업이 계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바란다.

**제7대
대구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 2015년 7월 ~ 2016년 6월

직 위	위 원 회	의 원 명	지 역 구
위원장	기획행정	오철환 의원	수성2
간 사	교 육	배창규 의원	비 례
위 원	기획행정	김혜정 의원	비 례
"	문화복지	김재관 의원	달서3
"	경제환경	김원구 의원	달서5
"		장상수 의원	동구2
"		최인철 의원	북구5
"	건설교통	류규하 의원	중구2
"		이귀화 의원	달서1
"		최재훈 의원	달성2
"	교 육	박상태 의원	달서4

시정소식

여성안심무인택배서비스 운영

대구시는 택배 기사를 사칭한 각종 범죄 예방과 단독주택 지역의 맞벌이 가구, 1인 여성가구 등 최근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정책에 반영한 '여성안심무인택배 서비스'를 대구시내 24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여성안심택배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택배 도착 후 48시간 이내 수령시 무료이나 그 이후는 하루당 1,000원씩 사용료를 내야한다.

▶ 여성가족정책관실 ☎ 803-4027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 시행

대구시는 7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차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부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d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 받아 공인인증서 이동(PC → 스마트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 세정담당관실 ☎ 803-2513

전국 최초 국가하천에 푸드트럭 영업 허용

대구시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2대의 영업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강정고령보는 대구의 대표적인 도시경관자원으로 4대강 대표 물문화관인 '디아크'가 함께 있어 연간 100만명이 찾는 국내외 관광명소이다. 국가하천에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푸드트럭 창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강정고령보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개혁추진단 ☎ 803-6145

서재문화체육센터 개관

대구시는 지난 6월 1일 서재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였다. 서재문화체육센터는 달성군 다사읍 환경자원사업소 입구에 세워졌다. 매립장 확장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시행된 서재문화체육센터에서는 수영, 헬스, 탁구, 요가,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야외에는 축구장(풋살장), 족구장을 인조잔디로 시공하여 사계절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특히 축구장(풋살장)은 조명탑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 자원순환과 ☎ 803-4264

3호선 모노레일 특별이벤트 열차 운영

대구도시철도공사는 3호선 이용 붐 조성과 지역의 대표적 관광상품 발굴을 위해 3호선 모노레일을 전용으로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1개 편성(3량)을 '통째로' 빌려주는 특별이벤트 열차를 운영한다. 특별이벤트 열차는 정규 운행열차와 별도로 운행되며 목적지까지 출입문을 열지 않고 원스톱으로 운행된다. 특별이벤트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용일 기준 1주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편도 35만원, 왕복 62만원이며 어린이 단체는 50% 할인해 준다.

▶ 교통정책과 ☎ 803-6644

대구사랑 달력(대구, 美 그리고 景) 제작

대구시는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달력에 담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홍보하기 위하여 2016년 달력을 제작 배부한다. 대구사에서 지역의 주요 명소 사진을 제공하고, NH농협에서 2016년 대구사랑 달력을 제작(60,000부)하여 대구를 알리는 데 앞장선다. 올 9월까지 제작 완료하여 10월 이후 지역 시민과 전국 대구향우회를 중심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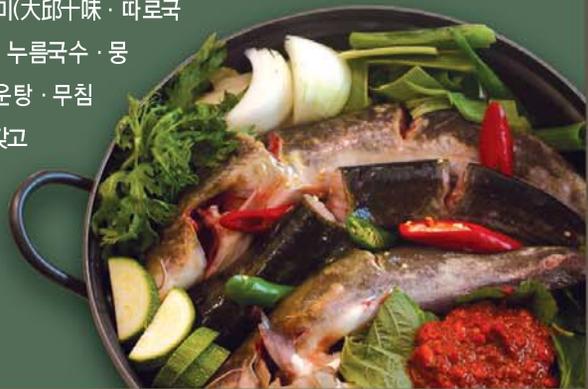
▶ 자치행정과 ☎ 803-2822



푸드 스토리텔링을 만들자

명물식당 하나, 열 관광지 안부럽다. SNS에 팔도 맛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 지금. 진짜 '금강산 식후경'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먹방(음식 방송) 신드롬 탓인지 유명 식당은 갈수록 세인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그러니 각 지자체도 서둘러 푸드 스토리텔링이 있는 푸드투어 상품을 만들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통요리연구가, 식품영양학자, 사찰 및 약선요리 전문가, 음식칼럼니스트, 파워푸드 블로거 등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구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을 만나기 힘들다'고 믿는다. 누가 '대구는 음식지옥'이라고 푸념을 늘어놓으면 다들 '맞다'면서 맞장구를 친다. 이런 정서가 대구음식문화를 망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음식의 위상은 좀처럼 상위권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음식밖에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단견이다. 대구는 '대구십미(大邱十味·따로국밥·동인동찜갈비·납작만두·막곰창·누름국수·몽티기·복불고기·야키우동·논메기매운탕·무침회)'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이걸 갖고 '푸드 스토리텔링(Food Storytelling) 마케팅'을 구사해야 한다.



‘대구 국수길’ 조성

‘대구 국수길’을 만들자. 일명 ‘대구 누들투어 (Daegu Noodle Tour·일명 DNT)’.



일단 (주)풍국면의 도움을 받아 ‘대구 국수길 연구소’를 만든다. 이 연구소를 통해 ‘한국 국수 백서’를 펴낸다. 물론 건진국수와 누름국수 두 버전을 가진 안동국수, 한국 해물칼국수의 지존으로 불리는 포항 구룡포 모리국수와도 손을 잡는다. 체험단은 풍국면에 가서 대구 국수의 역사와 제면 과정을 체험한다. 이때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의 별표국수 등 1950~70년대 골목 국수집 스토리를 들려준다. 대구발 추억의 소표, 말표, 기린표 등 지역 유명 국수공장의 흥망사도 곁들인다.

웰빙만두의 선두주자 납작만두

삼각만두의 조상격인 납작만두. 대구 분식의 해결사다.



이 음식을 지역민은 가볍게 보지만 서울·경기권은 물론 외국 관광객한테는 독특한 만두로 어필 중이다. 납작만두는 이탈리아 만두로 불리는 ‘라비올리’처럼 보인다. ‘대구의 라비올리’로 홍보해도 될 것이다.

술안주길의 백마... 대구 곱창·막창길

요즘 서울 흥대클럽 버전으로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가장 인기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대구 곱창과 막창이다. 곱창과 막창은 소의 부산물 중에서 가장 품귀현상을 보이는 부위. 그 어느 도시에서도 이걸로 요리를 해먹을 줄 몰랐다. 오직 대구만 빼고.

대구에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막·곱창

집이 골목마다 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제 ‘막·곱창 없으면 회식도 없다’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다.

전국 ‘술안주 투어족’이 가장 좋아하는 곳도 단연 남구 대명동 안지랑시장과 맞물린 ‘안지랑시장 양념곱창 골목’으로 ‘곱창족의 성지’로 불린다. 막·곱창 옆에 ‘평화시장 닭똥집 거리’를 매칭시켜라. 닭똥집은 대구십미에 들어가는 메뉴는 아니지만 평화시장 닭똥집 튀김은 안지랑 양념곱창거리와 함께 대구 양대 술안주거리의 쌍벽을 이룬다. 닭똥집과 함께 대구가 고향인 프라이드치킨을 위한 ‘꼬끼오 로드’도 구축해보면 어떨까?

대구십미(大邱十味) 테마송을 만들자

전국에선 처음으로 한 도시의 대표음식을 위한 푸드송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대구십미 홍보를 위해 테마송을 공모하고, 노래가

작곡되면 테마송을 부를 기수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칠곡군이 고향인 신세대 트로트 가수 1순위로 꼽히는 신유, 혹은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홍보대사인 그룹 부활의 전 리더보컬인 정동하가 부르면 효과가 날 것이다. 물론 전국노래자랑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구길러풀축제와 연계하여 ‘대구십미 페스티벌’을 만들어 대구의 열큰 화끈한 이미지를 적극 활용, 전국에서 가장 매운 짬뽕(남구 이천동 ‘진홍반점’과 송현동 ‘가야성’은 현재 전국 10대 짬뽕 명가로 평가됨) 먹기 대회도 열자. 지역 한정식 오너 세프가 주도적으로 대구십미 메뉴를 활용한 ‘대구십미 풀코스 정찬 메뉴’까지 개발하면 금상첨화.

글 : 이춘호 (영남일보 음식전문기자)





방촌초등학교 '학생 모의의회' 체험

대구의회소식 표지사진 공모

대구광역시의회는 대구 의회소식의 표지사진으로 활용될 시민들의 소중한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nadae9569@dae.gu.go.kr)
- 문의 : 053803-5045

● 유의사항

- 제출된 사진의 초상권 및 저작권에 대한 사항은 제출자 책임으로 하며, 분쟁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사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저작권 등은 대구광역시의회에 있으며, 향후 대구광역시의회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대구의회소식」 무료구독신청 안내

- 인터넷 : 대구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dae.gu.go.kr>) → 자료실 → 의회간행물 → 의회소식지 → 무료구독신청 → 구독 장소주소, 이름, 연락처 작성 → 구독신청 클릭
- 전 화 : 053) 803-5045 / 팩 스 : 053) 803-8921



스마트폰으로도
무료구독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의회
DAEGU METROPOLITAN COUNCIL